

메이지정부의 신불판연령(神仏判然令) 고찰 - 배경 및 경과를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0@tu.ac.kr

<目次>

- | | |
|---------------------|-----------|
| 1. 서론 | 2.6 신본불적설 |
| 2. 불교전래와 신불혼효(신불습합) | 3. 신불판연령 |
| 2.1 친구지 건립 | 3.1 배경 |
| 2.2 밀교에 따른 계열화 | 3.2 국가신도 |
| 2.3 원령신앙 | 3.3 경과 |
| 2.4 게카레 기피의 논리 | 4. 결론 |
| 2.5 본지수적설 | |

主題語: 신불판연령(ZINBUTSUHANZENREI), 신불혼효(ZINNBUTSUKONKOU), 신불습합(ZINNBUTSUSUYUGYOU), 메이지정부(MAIZI Governmentovel), 신도(SINDOU), 불교(Buddhism)

1. 서론

사원(절)이 불교의 「부처(석가모니)」를 섬기는 것이라면, 신사(神社)는 신도(신교/神教=神道)의 신 「가미사마(神様)」를 받든다. 즉 일본에서의 사원과 신사의 차이는 종교적 차이로써, 모시고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하츠모데(初詣)를 위한 예배를 신사가 아닌 절로 가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반야심경(般若心經)」 등의 경전을 사원과 신사에서 모두 같이 읊는 의례를 행하고 있어서 유사한 면이 많다. 이는 신불혼효(神佛混淆) 내지는 신불습합(神佛習合)의 흔적이다(신부츠곤코/神仏混淆=신부츠슈고/神仏習合). 본래 일본에서는 신을 모시면서 건물은 세우지 않았었다. 일반적으로는 신의 몸(御神体)이라고 믿는 산 등을 직접 숭배했었는데 6세기경 대륙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와 사원이 다수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신도측에서도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이가 곧 신사이다.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당시로서는 「よその国の神様なんか拝めない」라고 저항하는 민중이 대세였기 때문에 불교를 전파하고자 한 사람들은 「実は仏様も神様も同じもの」라는 설득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불교와 신도가 융합하는 소위 신불혼효가 생겨나게 된다. 이 습속은 나라시대부터 메이지시대의 신불판연령(神仏判然令=신불분리령/神仏分離令)까지 이어졌으며, 현재에 와서도 그 혼적은 남아 있다. 절 안에 고마이누(狛犬?)가 있거나, 신사에 교반(魚板/목어)이 있는 경우, 신사와 절이 같은 경내에 있는 것도 이러한 잔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미소카(大晦日)날에는 절에서 종을 치고, 하츠모데는 신사에서 경배를 하고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맹세하며, 임종 시에는 부처에게 기도한다는 일본사회의 종교에 대한 유연성을 찾아볼 수 있는 한 부분이다.

상술했듯이 신불혼효는 원래, 신도(神道)를 신앙하는 일반 대중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불교의 말단직 전도사들이 「신이나 부처님도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진행된 것이 그 시작이다. 게이오(慶応) 4년(1868) 3월 28일, 유신정부는 신불혼효를 금지하고, 사원과 신사를 분리하도록 명하는 신불판연령을 내리기에 이른다.

본고에서는 일본사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유연성이 신불혼효 사상을 만들었으며 그러한 오랜 흐름이 메이지시대에 들어 신불판연령(神仏判然令)으로 정리되는 배경과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관련 연구로, 근년 구미의 종교사학자가 공표한 유신정부의 종교정책에 관한 주목할 만한 성과인 알렌 글라파드(Allen Grapard)의 「신사불각복합체(神社佛閣複合體)」라는 재미있는 테마의 논문이 선구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 신불분리는 일본에서의 중대한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³⁾. 이와 같은 글로벌적인 관심과 더불어 마틴 콜컷(Martin Collcutt)은 불교의 사원과 승려에 대해, 도리어 신도와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는 배불(排佛)이 메이지시대의 새로운 신사상이 아니라 도쿠가와(徳川)시대에 대다수 지식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사상적 특색이었다고 지적

- 1) 神仏分離(しんぶつぶんり)는 神仏習合의 습관을 금지하고 신도와 불교, 신과 부처, 신사와 사원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 움직임은 빠른 중세부터 보여지지만 일반적으로는 江戸時代 중기후기 이후의 유교나 국학이나 복고신도와 동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메이지신정부에 의해 나온 신불분리령(신불판연령)은 게이오4년 3월 13일(1868년4월5일)부터 明治元年 10월 18일(1868년12월1일)까지에 나온 태정관포고령(太政官布告) 신기관 사무국달(神祇官事務局達), 태정관달(太政官達) 등 일련의 통달(通達)에 기초한 전국적이고도 공적으로 이루어진 분리령을 말함.
- 2) 신사(神社) 앞에 마주보게 놓은, 한 쌍의 사자 비슷한 짐승의 상. 마귀를 쫓기 위한 것이라 함. 고마(高麗)에서 전래되었다 함.
- 3) Allan Grapard, Japan's ignored cultural revolution the separation of Shinto-Buddhist divinities and a case study. Tonomine' *History of religions* 23, 3(1984)

하였다. 나아가 메이지정부의 불교 공격을 과도하게 단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신도의 진흥이 이해를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하였다⁴⁾. 이처럼 국제적으로 일본의 신도는 새로운 개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본고에서는 메이지 정부의 신불판연령(神仏判然令)에 대해 고찰하고 그 과정의 필요성과 영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일본사회의 종교라는 의미에 대해 재인식 해보고자 하는 바이다.

2. 불교전래와 신불혼효(신불습합)

552년⁵⁾ 불교가 일본에 공전(公伝)된 당시의 부처는, 반신(蕃神/となりのくにのかみ)으로서 일본의 신과 동질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출가하여 부처를 섬긴 승려는 쯤신니(善信尼⁷⁾)라는 인물이라고 『니혼쇼키(日本書紀)』에 전하고 있다. 쯤신니가 부처를 섬겼다는 것은 미코(巫女⁸⁾)가 일본의 진기(神祇⁹⁾)를 섬겨온 것처럼 부처에게도 그대로 적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로 사원의 소실은 부처의 저주 내지는 재앙이라는 사고방식은 본래 불교에서는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진기신앙(神祇信仰)을 그대로 부처에 적용시켰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전래에 따라 불교와 신도의 결합은 이루어지며 그 과정 속에는 일본 나름의 종교적 유연성과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불혼효사상이 어떠한 경로를 거치며 이루어졌는지 시대적 사례를 통하여 이하,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Martin Collcutt, Buddhism: the threat of eradication (Marius Jansen and Gilbert zam 編 *Japan in transition: Tokugawa to Meiji*, Princeton: Princeton)

5) 538년이라는 설도 있음.

6) 仏教公伝(ぶつきょうこうでん): 국가 간 공적인 교섭으로서 불교가 전해진 것을 가리킴. 일본에서는 6세기 중반 긴메이(欽明)천황기 백제로부터 왜(倭/古代日本)로의 仏教公伝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7) 善信尼(ぜんしんに) 6세기 후반 비구니승. 에젠니(恵善尼), 쯤조니(禪藏尼)와 더불어 일본최초 여승 중 한 사람.

8) 巫女 또는 神子(みこ, ふじょ) 주로 일본의 신을 모시는 역할을 하는 여성을 말함. 무희(舞姫/まいひめ)御神子(みかんこ)라고 호칭되는 경우도 있음.

9) 신기. 천신(天神)과 지신(地神), 천신지기. 동의어:天神地祇(てんじんちぎ)

2.1. 친구지¹⁰)(神宮寺) 건립

최초 일본인에게 부처는 일본의 신들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처 아래 신과 인간을 동렬로 위치시켜 일본의 신들도 인간과 같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부처의 구제를 추구하고 해탈(解脫)하기를 바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715년(靈龜 元年) 에치젠쿠니(越前國)의 게비다이진(氣比大神¹¹)의 탁선¹²(託宣)에 의해 친구지가 건립되면서, 나라(奈良)시대 초두부터 국가차원에서의 신사의 친구지 건립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만간선사(滿願禪師¹³) 등에 따른 가시마친구(鹿島神宮), 가모진자(賀茂神社), 이세친구(伊勢神宮) 등, 경 내외를 따지지 않고 친구지가 병설되었다. 또 우사하치만(宇佐八幡¹⁴) 신사의 신처럼 신의 몸(神體)이 보살형(菩薩形)을 한 신(僧形八幡神)도 나타나게 된다. 나라시대 후반이 되면 이세(伊勢)의 구와나군(桑名郡)에 있는 현지 호족의 씨신(氏神)인 다도타이샤(多度大神¹⁵)가 신의 몸을 버리고 불도수행을 하기 위해 탁선을 하는 등, 친구지 건립의 움직임은 지방의 신사까지 확대되어 와카사히고(わかさひこ/若狭彦)의 신, 나오키즈시마(おきつしま/奥津島) 신사의 대신(大神) 등 다른 여러 제국의 신들도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전반에 걸쳐서 불도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고뇌하는 신들의 구제를 위해 신사 옆에는 사원이 세워지고 친구지가 되어 신사 앞에서 독경을 읊게되는 경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신들의 불도귀의 탁선은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받들고자 하는 유력호족들의 바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율령제 도입에 따른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호족들이 그저 단순한 공동체 수장에서 사적소유지를 가진 영주적 성격을 띠게 되자, 동반하여 공동체에 따른 제사로 모셔지던 종래의 진기신앙(神祇信仰)은 막다른 지경에 이르러 사적소유와 더불어 죄를 자각하게 된 호족개인은 새로운 정신적 지주를 찾게 된다. 대승불교는 그 구조상 이타행(利他行)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호족들에게도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응하듯이 잡밀(雜密¹⁶)을 몸에 익힌 여행승(遊行僧)이 나타나 친구지(神宮寺) 건립

10) 일본에서 신불습합에 기초하여 신사에 부속 건립된 불교사원이나 불당. 別當寺, 神護寺, 宮寺라고도 함

11) 伊奢沙別命(いざさわけのみこと)를 일컫는 말로 氣比大神이라고도 함

12) 신이 사람에게 알림. 신탁(神託).

13) 滿願(まんがん) 나라시대에서 헤이안 전기에 걸친 승려. 성장 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신불습합을 전파하여 鹿島神宮, 箱根三所權現, 多度大社 등의 친구지 창건 혹은 神像 제작에 큰 역할을 함.

14) 大分県宇佐市에 있는 神社. 전국 사만사천사라고 불리는 八幡宮의 總本宮.

15) たどたいしや: 三重県桑名市多度町多度に 있는 신사

에 앞장섰다고도 알려지고 있다. 또 밀교(密敎)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주술적(呪術的) 수행이나 기적을 중시하고 세속적 부의 축적이나 번영을 긍정하는 성격에서 진기신앙과 절충하기 쉬웠다는 점이, 호족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신사가 사원에 접근하는 한편, 사원도 신사 측으로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

8세기 후반에는 그 사원에 관계있는 신을 사원의 수호신인 진쥬(鎮守¹⁷)로 모시고자 하였다. 710年(和銅3年)에 고후쿠지(興福寺¹⁸)에서 가스카다이샤(春日大社¹⁹)는 가장 빠른 그 하나의 예이다. 또 도다이지(東大寺²⁰)는 대불건립에 협력한 우사하치만신(宇佐八幡神)을 권칭(勸請²¹)하여 신으로 모심(진쥬/鎮守)으로써 이것이 현재의 다무케야마하치만구(手向山八幡宮²²)이다. 다른 고대의 유력사원을 보아도 엔라쿠지(延曆寺²³), 히요시다이사(日吉大社²⁴), 곤고부지(金剛峯寺²⁵)는 니후츠히메진자(丹生神社²⁶), 도지(東寺²⁷)는 후시미이나리다이샤(伏見稻荷大社²⁸)등 모두 각각의 수호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신과 부처는 동일한 신앙체계 중에 있으나, 어디까지나 다른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서 동일 존재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 단계 후 신불습합(神仏習合)과 특히 구별하여 신불혼효(神仏混淆) 사상이 나온다. 수많은 신사에 진구지가 세워지고 사원 아래 신사가 세워졌지만 그것은 종래의 진기신앙을 압박하는 일은 없었으며 진기신앙과 불교신앙이라는 것이 상호 보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16) 밀교(密敎/みつきょう)중 여러 밀교의 일부를 섭취한 것을 의미함. 밀교는 대승불교 중 비밀교를 가리킴. 「秘密仏敎」의 약칭이라고 하며 비밀스런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짐.
 17) 사원(寺院)을 지키기 위해 그 경내에 모시는 신. 또는 그 건물.
 18) 興福寺(こうふくじ)は、奈良県奈良市登大路町(のぼりおおじちょう)にある、南都六宗の一つ、法相宗の大本山の寺院である。
 19) 春日大社(かすがたいしゃ)は、奈良県奈良市にある神社。
 20) 東大寺(とうだいじ)는 奈良県奈良市雜司町에 있는 華嚴宗大本山の 절.
 21) 신불(神佛)의 내림(來臨)이나 신탁(神託)을 밋.
 22) 手向山八幡宮(たむけやまはちまんぐう)는 奈良県奈良市에 鎮座하는 神社.
 23) 延曆寺(えんりゃくじ)는 滋賀県大津市에 있는 標高 848m의 比叡山 전역을 경내로 하는 사원.
 24) 日吉大社(ひよしだいしゃ)는 滋賀県大津市에 있는 神社.
 25) 金剛峯寺(こんごうぶじ)는 和歌山県高野町高野山에 있는 高野山 真言宗 総本山 사원.
 26) 丹生都比売神社(にぶつひめじんじ야, にうつひめじんじ야)는 和歌山県伊都郡에 있는 神社.
 27) 東寺(とうじ)는 京都市南区九条町에 있는 모든 真言宗寺院의 총본산.
 28) 伏見稻荷大社(ふしみいなりたいしゃ)는 京都市伏見区에 있는 神社.

2.2. 밀교(密敎)에 의한 계열화

이들 진구지는 잡밀(雜密)계 경전을 중심으로 지역 호족 층의 지원을 받아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한편으로 이러한 사태는 호족 층의 진기신앙을 멀리하는 결과를 촉진하였고 진기신앙의 하츠오(初穗²⁹)의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조세징수나 진기신앙으로 국가에 대한 구심력 저하는 크게 걱정되는 바였다. 또한 율령제의 변질과 동반하여 큰 절과 신사는 소령(所領) 확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여 지방의 진구지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대사원의 별원(別院)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조정(朝廷)에서도 국가진호(國家鎮護)을 위해 대사원을 계열화함으로써 여러 지방의 진구지에 대한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진기신앙(神祇信仰)과 습합하기 쉬운 주술적 요소를 가지면서도 국가보호와 유지에 보편성과 추상성(抽象性)을 갖추고 또 교설(敎說)을 정비한 중앙의 대사원으로서 諸國의 진구지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구카이(空海³⁰)의 진언종(真言宗³¹)이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요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천태종(天台宗³²)에 있어서도 엔닌(円仁³³)이나 엔진(円珍³⁴)에 따른 밀교 수용이 진행되었다.

또 나라시대부터 발달해 온 슈겐도(修驗道³⁵)도 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었다.

29) 해 들어 처음 익은 벼이삭을 신불(神佛)이나 조정 등에 바치는 것.

30) 空海(くわい:774年-835年) 平安時代 초기승려. 弘法大師(こうぼうだいし)시호로 알려진 真言宗의 개조

31) 真言宗(しんごんしゅう): 弘法大師에 의해 9세기(平安時代)초두에 개창됨. 일본 仏敎의 한 종파

32) 天台宗(てんだいしゅう)은 대승불교 종파의 하나. 妙法蓮華經(法華經)을 근본 經典으로 하는 天台敎學에 기반을 둬. 天台敎學은 중국에서 禪祥하여 入唐한 最澄(伝敎大師)에 의해 平安時代 초기 일본에 전해짐.

33) 円仁(えんにん:794-864) 제3대 天台座主. 慈覺大師(じかくだいし)이라고 함.

34) 円珍(えんちん:814-891) 平安時代 天台宗의 승려. 天台寺門宗의 宗祖

35) 修驗道(しゅげんどう)는 산속 생활을 통해 엄격한 수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고래의 산악신앙이 불교에 받아들여진 일본특유의 혼효종교(混漚宗敎)이다. 修驗道の 실천자를 슈겐자 또는 야마부시(山伏)라고 함.

2.3. 원령(怨靈) 신앙³⁶⁾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밀교의 융성함은 왕권의 상대화를 초래하여 후지와라씨(藤原氏³⁷⁾)의 세력확대에 동반한 종래 명문족의 몰락과 더불어 정쟁(政爭)의 패자(敗者)들을 거두어 줌으로써 왕권에의 불만이나 반발을 정당화하는 원령신앙(怨靈信仰)이 성행하게 되었다. 원령신앙이란 원령의 신격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9세기에는 고료에(御靈會³⁸⁾)의 유행을 가져왔지만 이것이 진기신앙에 종래부터 있었던 원령제사의 풍습에 더하여 밀교 측으로부터의 떨어져나가는 영혼을 달래어 육체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진혼(鎮魂)제도 행하였던 점에서 신불습합(神仏習合)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스가와라노 미치사네(菅原道真³⁹⁾)의 원령이 천신신앙(天神信仰⁴⁰⁾)으로 발전함에 따라 불교의 논리에 의한 천부(天部⁴¹⁾)로 평가받았던 것은, 왕권에 대한 저주 후에 모셔져 선신(善神/護法善神⁴²⁾)이 되었다는 사고방식이 밀교의 영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전형적인 예를 다이라노 마사카도(たいらのまさかど/平将門)의 즉위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사카도는 헤이안시대 중기 관동의 호족으로, 헤이씨(平氏)의 성(姓)을 부여받은 다이라오 다카모치오(高望王⁴³⁾)의 셋째 아들인 다이라노 요시마사(平良将)의 아들이다. 그는 간무텐노(桓武天皇)의 5세로 시모우사노쿠니(下総国⁴⁴⁾), 히타치노쿠니(常陸国⁴⁵⁾)로 확대되었던 헤이씨 일족의 항쟁으로부터 마침내는 관동제국을 전쟁에 끌어들었고, 그 무렵 고쿠가

36) 에도시대에 와 더욱 서민은 일반적으로 원령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민속학상의 분석이 있음. 死者의 영은 양의적 측면을 가진다고 하며, 원령과 반대로 축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 선조의 영인 조령(祖靈)이다. 인도 불교에서는 사람은 7일에 한번씩 7번 전생(転生)의 기회가 있으며 예외없이 49일 이내에 전원이 전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특정개념은 다르지만 일본불교에서는 신불습합을 위해 영을 인정하는 종파도 있다.

37) 藤原鎌足를 선조로 하는 神別氏族으로, 飛鳥時代부터 藤原라는 개별 성을 칭하였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公家を 배출하는 외, 일본각지에 지류가 있다.

38) 御靈會(ごりょうえ)라는 것은 뜻밖에도 죽음을 맞이한 자의 영혼에 의한 저주를 막기 위해 진혼(鎮魂)을 위한 의례로 御靈祭라고도 한다.

39) 菅原道真(すがわらのみちざね:845年-903年) 일본의 平安時代の 귀족. 학자, 漢詩人, 정치인, 官位는 從二位・右大臣.

40) 天神信仰(てんじんしんこう)은 天神(雷神)에 대한 신앙. 특히 菅原道真를 「天神様」으로 경의하여 기원의 대상으로 한 신도신앙.

41) 天部(てんぶ)는 밀교에 있어서 신들을 의미하는 종격(尊格)의 하나.

42) 仏法 및 仏教徒를 수호하는 천부의 신들. 護法神(ごほうしん) 혹은 諸天善神(しよてんぜんしん)등으로도 불림.

43) たいらのたかもち(高望王/たかもちおう) 헤이안중기의 역성(賜姓)황족

44) 下総国(しもうさのくに)는 옛날 일본 지방행정구분이었던 令制国의 하나. 東海도에 위치함.

45) 常陸国(ひたちのくに)는 옛날 일본 지방행정구분이었던 令制国의 하나. 東海도에 위치함. 별칭은 常州(じょうしゅう). 령역은 현재의 茨城県에 해당함.

(国衙⁴⁶)를 습격하여 도장과 열쇠를 빼앗고 교토의 조정에 있던 스이자쿠텐노(朱雀天皇)에 대항하여 신황(しんのう/新皇⁴⁷)을 자칭하고 동국(東国)의 독립을 표방하게 되었고 결국 조정의 적이 되기였다. 그러아 즉위 후 겨우 2개우러도 채 지나지 않아 후지와라노 히데사토(藤原秀郷), 다이라도사다모리(平貞盛) 등에 의하여 토벌되었다. 이를 죠헤이 덴쿄노란(じょうへいてんぎょうのらん/承平天慶の乱)이라고 한다. 그의 사후 미쿠비진자(御首神社⁴⁸), 즈쿠도진자(築土神社⁴⁹), 간다묘진(神田明神⁵⁰), 고쿠오진자(王神社⁵¹)등에서 받들어져 모셔지고 있다. 무사의 생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전쟁에서는 소령(所領)으로부터 산출된 풍부한 말(馬)을 이용하여 기마대(騎馬隊)를 만들었고 허리가 휘어진 일본도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한다.

마사카도의 신황 즉위는 신불습합의 신이며 천황가의 조상신인 하치만진(八幡神⁵²)으로부터 작위를 받았고, 위계를 주는 공문서인 이기(位記/辞令)를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⁵³)가 썼다고 하며 불교음악에 의해 의식을 행하도록 하라고 진기신앙의 미코(巫女)가 선탁(宣託)을 한 것이라는, 왕권상대화(王權相對化)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불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4. 게가레(ケガレ⁵⁴)기피의 논리

이처럼 주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대중에 대하여 불교 측으로부터의 침투에 대항하여 진기 신앙 측에서도 이론으로 무장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왔다.

진기신앙에 있어서는 종래 그렇게까지 현저하지 않았던 2가지의 극한 대립적 사고방식이 발달하여 청정(淸淨)과 부정(ケガレ)이라는 것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 9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서 종래에는 부정을 가시는 것으로(祓⁵⁵) 제거되던 부정의 제거 방법이 온묘도(陰

46) 고쿠가(こくが)는 日本 律令制에서 행정관인 고쿠시(國司)가 지방정치를 수행하던 관청이 있는 곳

47) 天慶2年(939年) 12월에 平将門가 「新しい天皇」라는 뜻으로 자칭한 칭호 이후 将門는 헤이씨 출신이라는 점에서 「平新皇」이라고 불렸음. 후세 「平親王」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오칭임.

48) 岐阜県大垣市荒尾町에 있는 신사.

49) 東京都千代田九段에 있는 신사.

50) 東京千代田区外神田二丁目에 있는 신사.

51) 県坂東市에 있는 신사.

52) 日本에서 신앙되는 신으로, 세이와겐지(清和源氏)를 비롯해 전국 무사로부터 무운의 신(武運の神/武神「유미야하치만(弓矢八幡)으로 숭배를 받았음.

53) 헤이안시대의 귀족, 학자, 漢詩人, 정치가

54) 더러움. 불결. 추악/ 월경(月經)·해산(解産)·상중(喪中) 등의 부정(不淨)함.

55) 祓(はらえ/はらい):神道上에서 죄를 범한 아마즈즈미(天津罪) 구니즈즈미(国津罪) 등의 죄나 부정함.

陽道⁵⁶⁾의 영향도 있어서 모노이미(物忌み⁵⁷⁾중심으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기신앙의 논리성 강화는 불교 측으로부터의 침식에 대항하여 이것과 공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0세기 말에는 정토사상(浄土思想⁵⁸⁾)에도 게가레(ケガレ)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왕생요집(おうじょうようしゅう/往生要集⁵⁹⁾)등에는 본래 불교의 정예(淨穢)사상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진기신앙의 게가레를 이용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2.5. 본지수적설(ほんじすいじゃくせつ/本地垂迹説)

본지수적설이란 불교가 융성했던 시대에 나타난 신불습합사상의 하나로, 일본의 여러 많은 신들이 사실은 다양한 부처(菩薩이나 天部⁶⁰⁾ 등을 포함)의 화신으로서 일본에 나타났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정토(浄土)사상의 보급은 게가레(ケガレ)를 기피하는 진기신앙에 대하여 게가레로부터 근본적 이탈방법의 제시가 가능한 불교의 우위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부처나 보살을 본지(本地)로 생각하고 그 부처나 보살이 구제하는 중생에게 맞는 형태(垂迹)를 통하여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본지수적설은 이 같은 불교상위(仏教上位)적 상황 하에서 불교 측의 진기신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절대적 존재로서의 부처나 보살이 그 화신으로서의 신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신불(神仏)조화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불교우위 사고방식은 게가레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무사(武士)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이후 하치만(八幡神)신앙이나 천신(天神)신앙이 융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마쿠라(鎌倉)시대가 되면 본지수적설에 따른 료부(兩部)신도⁶¹⁾나 산노(山王)신도⁶²⁾에

재액 등의 부정을 심신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가미고토(神事) 주술을 의미함. 祓를 위한 神事を 修祓(しゅばつ, しゅうほつ)라고 함.

- 56) 陰陽道(おんみょうどう)는 陰陽寮에서 가르치던 天文道, 曆道の 일종. 「おんようどう」「いんようどう」라고도 함. 古代 中国에서 발생한 自然哲学思想,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기원으로 하여 일본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자연과학과 주술의 체계. 陰陽道에 종사하는 사람을 陰陽師라고 하였으나 후에 陰陽寮에 소속되어 六壬神課로 점을 쳤으며 액을 제거하기 위해 액막이를 하는 것 모두를 陰陽師라고 부르게 되었다. 陰陽師 집단을 陰陽道라고 부르기도 한다.
- 57) 부정을 탄다고 어떤 행위나 물건을 꺼리어 피함. 기회(忌諱)함. 금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이나 언행을 삼가며, 몸을 깨끗이 하여 부정을 피함. 재계(齋戒).
- 58)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성불한다는 가르침
- 59) 히에산(比叡山) 중의 横川の 恵心院에 은거해 있던 眞信(源信)이 寛和元年(985年)에 정토교의 관점에서 많은 불교경전이나 논서(論書)등으로부터 극락왕생에 관한 중요한 문장을 모은 불교서. 1部 3卷으로 되어있다.
- 60) てんぶ는 密教에서 신들을 의미하는 존격(尊格)의 하나임. 대부분은 고대 인도의 바라문교(고대 힌두교) 신들이 밀교에 들어와 부처의 수호신인 호법신신(護法善神)이 되었다고 함.

다른 오히라에코토바(大祓禊⁶³)/おおはらえのことば의 밀교적 해설이나 일본신화 등에 등장하는 신이나 신사의 제신(祭神)에 대한 밀교적인 설명을 시도하는바가 활발해져 소위 중세일본기(中世日本紀⁶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불교의 天部の 신들도 본래는 힌두교 신이었던 것과 같이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지역 사회나 중국에서도 그들 토착민족의 신들을 포섭해 온 역사가 있다. 불교에는 그와 같은 성질이 본래 구비되고 있었던 것이 신불습합을 낳은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2.6. 신본불적설(神本仏迹説) · 반본지수적설(反本地垂迹説)

가마쿠라 중기가 되면 반대로 부처가 신의 곤계(権⁶⁵)이며, 신이 주(主)이고 부처가 종(從)이라고 생각하는 신본불적설(神本仏迹説)도 나타났다. 불교우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신도층이 불교로부터 독립하고자하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세와외궁(伊勢外宮)의 신관인 와타라이우지(渡会氏⁶⁶)는 신화와 신사(神事)를 정리하거나 재편집하여 『신도고부쇼(神道五部書)』를 작성하고 이세와타라이(伊勢渡会)신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또 현실을 긍정하는 본가쿠사상(本覚思想⁶⁷)을 가진 천태종(天台宗)의 교의를 유용하여 신도의 이론화가 시도되었으며, 더구나 구카이(空海⁶⁸)에 의한 수 종류의

이론서도 재편집되어 와타라이 이에유키(渡会家行⁶⁹) 등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남북조시대부터 무로마치시대에는 반본지수적설(反本地垂迹説)이 점점 더 주장되어 천태종 측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지헨(慈遍⁷⁰)은 『旧事本紀玄義』『豊葦原神風和記』를 저술

61) りょうぶしんとう는 仏教의 眞言宗(密教)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신도해석에 기초한 신불습합사상, 兩部習合神道(りょうぶしゅうごうしんとう)이라고도 함.

62) さんのうしんとう은 平安時代 말기부터 鎌倉時代に 걸쳐서 天台宗의 총본산인 比叡山延暦寺에서 생겨난 신도의 한 유파이다. 협의로는 江戸時代の 天海(てんかい)보다 이전을 山王神道라고 한다.

63) おおはらえのことば는 神道の제사에 이용된 축사(祝詞)의 하나.

64) 中世日本紀(ちゅうせいじほんぎ)란 日本중세에 있어서 『日本書紀』등에 기초하면서도 주로 본지수적설 등에 서서 다양하게 해석, 재편성된 신화군이 총칭. 혹은 그와 같은 해석·재편성의 움직임은 가리키는 학술용어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중세신화라고도 한다.

65)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람으로 변신하여 이 세상에 나타남. 또는 그 화신(化身). 현신(現身).

66) わたらいうじ는 명치초기까지 도요우케다이신구(とようけだいじんぐう/伊勢豊受大神宮/伊勢神宮外宮)의 祠官을 세습한 氏族

67) ほんがく는 본래 覚性(かくしょう)라는 것으로, 일체 중생에게 본본디 가지고있던 깨달음(悟り=覚)의 지혜를 의미함. 중생은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혹은 본디부터 갖추고 있던 혹은 깨닫고 있던 것을 말함. 주로 天台宗을 중심으로 불교계 전체에 퍼져있던 사상으로 생각되며 오늘날에 와서는 本覚思想, 天台本覚思想이라고 칭해진다.

68) 평안시대 초기 승려. 弘法大師(こうぼうだいし)라고 알려진 진언종의 개조.

69) 渡会家行(わたらいいえゆき)이세신궁(이세신궁의 外宮(豊受大神宮)의 신관으로 伊勢神道の 대성자.

하여 신도로 개종하였고 료헨(良遍)은 『神代卷私見聞』『天地麗気記聞書』를 저술하여 이 설을 지지하였다. 신도가 요시다 카네토모(吉田兼俱)는 이를 전승 『唯一神道名法要集』를 저술하고 이 설을 대성시켰다. 그러나 가마쿠라기의 신불교는 그대로 본지수적설을 지지하였다.

에도시대에는 주자학 이론에 의해 두 파를 통합한 스이카신도(垂加神道)가 탄생했다. 스이카신도는 에도 전기에 제창된 신도설로 요시가와신도와 이세신도를 배운 유학자 아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⁷¹⁾)가 그것을 주자학 이론에 따라 통합한 것이다. 신도는 아마테라오미카미(天照大神)의 덕을 배우는 것이라고 설파하고 천황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것은 신기신앙의 주로파의 교의(教義)가 되어갔고 신도로서의 교의확립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신불습합사상은 자체는 메이지시대 신불분리까지 쇠퇴하는 일 없이 근현대에 있어서도 일본인의 정신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신불판연령

전근대의 신불분리는 오카야마번(おかやまはん/岡山藩)이나 미토번(みとはん/水戸藩)요도번(よどはん/淀藩) 등의 유교가 융성했던 번을 중심으로 신불분리정책이 시행되었다.

메이지유신 시절에 신사를 등급화하였던 근대사격제도(近代社格制度) 하에서 유일하게 대사(大社)라는 칭호를 받았던 신사인 이즈모오야시로(いずもおおやしろ/出雲大社)에서도 17세기에 신불분리는 시행되고 있다.

메이지시대의 신불분리는 불교배척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전국각지에서 폐불훼석(廢仏毀釈⁷²⁾)운동이 전개되어 각지의 사원이나 불구의 파괴가 일어났다. 지방의 장관이나 국학자가가 약동하여 데라우케제도(寺請制度⁷³⁾) 아래 사원의 부패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민중이 이에 가세하였다. 한 예를 들면 불교에서 수계자에게 주는 계명(名代)의 값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승려로부터 파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파문을 당하면 기독교인으로 간주되

70) じへん: 가마쿠라 말기부터 남북조시대에 걸친 천태종의 학승으로서 신도가

71) やまざきあんさい: 江戸전기의 유학자. 주자학자·신도가·사상가

72) はいぶつきしゃく(廢佛毀釈)은 불교사원·불상·경전을 파손하고 승려와 비구니 등의 출가자나 사원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이룸. 배불기석이라고도 함. 문헌에 따라서는 「廢仏稀釈」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오용임.

73) 에도막부가 종교통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 사청증문(寺請証文)을 받도록 민중에게 의무화시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원에 증명시키는 제도.

었다. 메이지정부는 신도국교화를 위한 준비로써 신불분리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메이지 5년 3月 14日(1872年 4月 21日)에 진기쇼(じんぎしょう/神祇省)의 폐지·교부성(敎部省) 설치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신불공동포교 체제가 되었다.

3.1. 배경

원래 수많은 신을 신앙으로서 믿고 의지하던 일본인들은, 조금 다른 계통의 신들이라도 영험만 있으면 비교적 용이하게 받아들였음을 상상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병이 든 사람에게 약초의 지식이 풍부한 수도지(山伏⁷⁴)가 방문해 약을 조제한 다음 후도고마(不動護摩⁷⁵)/ふどうごま 등을 행하여 현저한 회복을 보게 되면, 그것은 「후도님의 덕분이다/お不動さまのお陰だ」고 하여 부처를 향한 신앙이 생겨났다. 그렇지만 이전부터 믿고 신앙하던 지역신에게의 예배를 게을리 하는 일은 없었다. 또 번개나 태풍으로 무너진 가미키(御神木)를 수도자들이 관음보살상이나 지장보살상으로 조각하여 신령이 머무는 불상으로 신앙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종교」란 서양의 「religion」란 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상승시킨 계기는 아와타(八幡⁷⁶)나 이나리(稻荷⁷⁷)와 같은 곡물의 신 등을 숭배하는 신앙이었다. 나라 도다이지의 대불을 건조할 때, 하치만(八幡神)신을 신앙하는 귀화인 일파가 기술 협력을 하여, 이 때문에 하치만 신은 불교 측으로부터 「하치만 대보살」의 호를 받아 도다이지의 고장을 지키는 신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도 도다이지 경내에는 몇 개의 신사가 제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대별로 비교해 보자면,

헤이안 시대의 말경에는 불교계와 신도계가 공존을 위한 타협을 하게 된다. 설날을 신도 중심으로 하는 대신 추석은 불교 중심으로 지내게 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신사에 참배 하며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스님이 와서 경을 읽어주는 등, 양자는 종교적 행사를 절반씩

74) 산야에 기거하며 수행하는 중. 동의어 野伏のぶし 또는 修験者(しゅげんじゃ)의 띠이름

75) 不動호마. 부동명왕(不動明王)·애염명왕(愛染明王) 등을 본존으로, 그 앞에 단을 쌓고 화로를 마련하여, 호마목(護摩木)을 태우며 재앙과 악업을 없애 줄 것을 기도하는 밀교 의식

76) 八幡宮의 제신(祭神/やはたのかみ)「八幡神はちまんじん」의 준말

八幡神은 일본에서 신앙되는 신으로, 세이와겐지(清和源氏) 비롯한 전국의 무사들로부터 무신(武神)으로서 숭배를 받았다. 菅田別命(ほんだわけのみこと)로 불리며 오진텐노(応神天皇)과 동일시 되었다. 신불습합시대(神仏習合時代)에는 八幡大菩薩(はちまんたいぼさつ)라고도 불렸다.

77) 오곡(五穀)의 신 倉稻魂神(うかのみたまのかみ). 또는 그 신을 모신 신사(神社) 동의어: 稻荷神社(いなりじんじや・おいなりさま)

수행 해 가게 되었다. 춘분·추분도 절에서는 피안(彼岸)의 행사를 행하고 신사에서는 사일(社日)의 행사를 치른다.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자 전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선종·정토계 제종의 적극적 활동으로 불교 측이 꽤 우위에 서게 되어 신은 부처가 임시로 나타난 것이라는 「본지 수적설(本地垂迹說)」 등이 주장되었으며, 남북조 시대에 요시다 가네토모(吉田 兼俱)가 등장하여 요시다 신도를 일으켜 신도 측도 이론으로 무장함으로써 부처의 본체는 신이라고 하는 「역수적설(逆垂迹說)」이 주창되었다.

에도시대가 되면 하야시 라잔(林羅山)이나 요시카와 고레타리(吉川惟足) 등에 의해 유교적 요소와 사상 등도 더해져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그러나 크리스티교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에도 막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의 절에 시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테라우케제도를 추진하였고 이것이 종교계를 침체시켜버리는 원인이 된다.

원래 크리스티교도 「많은 신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일본인들이었지만 모모야마(桃山)시대 그 세력이 꽤 강해지면 혼간지(本願寺)나 히에잔(比叡山) 등도 탄압을 받기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시마바라의 란(島原の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島原은 기독교신자라 다이묘(大名)였던 아리마하루노부(有馬晴信)의 소령(所領)으로써 영주민(領住民)의 기독교신앙도 성행하고 있었다. 慶長 19年(1614年)에 씨족인 아리마씨(有馬氏)가 막부에 의해 전봉(転封)하게 되자 대신하여 야마토고쥬(大和五条)에서 무장출신의 다이묘인 마츠쿠라 시게마사(松倉重政)가 들어 왔다. 시게마사는 에도성의 개축을 위해 막부 토목공사에 농민들을 노역으로 종사하게 하였고 독자적으로 필립핀의 루손(ルソン)섬 원정을 계획하여 파견대를 보낸다는지, 시마바라성(島原城) 신축을 위해 영주민으로부터 연공을 과중하게 매겨 들었다. 그리고 엄격한 기독교 탄압을 개시하여 연공을 바치지 않는 농민이나 개종(改宗)을 거부한 기독교인에 대해 잔인한 고문과 처형을 가하였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함께 일으킨 란이 시마바라의 란(島原の乱)으로, 이에 충격을 받은 막부는 그 후 기독교인들에 대해 엄한 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크리스티교도를 내쫓기 위해 국민 전원을 불교도화 해 버리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자 절 측에서는 국가적으로 우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안주 해 버림으로써 포교 활동은 정체되고 활력을 잃게 되었다. 신사 측에서도 절에 종속되는 입장이 되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원래 절에는 그 경내를 진고(鎮護)하는 신사가 있고, 신사에는 그 신을 지키는 진고사(神護寺)가 있었지만, 에도시대 중기를 지나자 승려와 신관이 겸임하게 되면서 제사는 하급 승려의 일로 일반화 되어 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절에 소속하게 되자 절의

승려 중에는 권세를 믿고 난폭하게 구는 승려도 나타났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어 막부의 치세가 끝나자 유신정부는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국교를 정하고자 하였다. 이 때 서양을 모방하여 일본에서도 크리스티교를 국교로 삼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국가 신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우선 절과 신사를 명확하게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신불판연령이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의도를 넘어 파괴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불교배척 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그때까지 빠기듯 잘난 체 하던 승려들에게 반감을 느끼고 있던 민중들은 신불판연령을 「절을 폐지하고 불상은 파괴하라」고 확대 해석하며 절을 습격하는 사태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귀중한 불상들이 파괴 또는 해외에 유출되었는데 메이지 정부도 이러한 민중의 과열된 양상에 놀라, 절을 파괴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포고문을 내걸고 대응하게 되지만 진정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현재 절과 신사가 서로 이웃하면서도 왠지 그 사이에 이상한 경계선이 있는 듯 어색한 것은 이 신불판연령의 후유증이라고 할 것이다. 또 절과 같은 정문이 있는 곳에 신사가 있거나 신사에서 범종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신사와 절이 일체가 되었지만 절 측이 폐지된 결과일 것이다.

3.2. 국가신도(國家神道)

국가신도란 메이지유신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립된 국가종교 혹은 제사의 형태를 말하는 역사학적 호칭이다.

메이지정부는 신정부 수립의 기본정신인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실현과, 개국 이래 치안문제 우라가미무라(浦上村) 사건등으로 발전해 온 기독교 유입 방어를 위해 율령제 붕괴 이후 쇠퇴해져 있던 진기관(神祇官)을 부흥시켜 중세 이래 혼돈스러웠던 양상을 보이고 있던 신도(神道)의 조직정비를 행하였다. 이러한 국가신도의 주요 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신불분리정책이었다.

더불어 신사합사정책(神社合祀政策)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에도시대의 아이즈번(あいずはん/会津藩)이나 오카야마번(おかやまはん/岡山藩), 미토번(みとはん/水戸藩), 죠슈번(ちょうしゅうはん/長州藩), 즈와노번(つわのはん/津和野藩) 등에서는 비판론이 나오는 가운데 논의가 계속되면서 호코라(小祠⁸)와 인시(淫祠⁹)의 폐지와 통합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중 미토번의 신사합사정책을 특히 「하치만아라타메(八幡改め)」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배권을 사타케

시(さたけし/佐竹氏⁸⁰)가 존경하여 숭상했던 하치만신사를 파괴하고 스스로 숭배하는 가지마(鹿島)신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메이지가 되면 진기神祇官⁸¹)은 신사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신사의 정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1876년 이후 문부성은 이 방침을 변경하여 무격사(무가쿠지/無格社)나 불당의 정리를 시작하였다. 무격사란 법적으로 인정받은 신사 중에서 촌사(村社) 레벨에 이르지 못한 신사이며 신사의 격이 있는 신사와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호칭에 지나지 않는다. 정식은 아니지만 신사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무격사라고 해도 우지코(氏子⁸²)를 가진 신사가 대부분으로 독립신사로서는 신사와 다름없지만, 일반 신사와 비교하여 토지세나 지방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는지 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무격사는 메이지 말기의 신사통합의 희생양이 되어 폐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1906년(明治 39년) 12월에 일정촌일사(一町村一社)를 원칙으로 하는 통폐합을 시행하기 위한 「신사합사령(神社合祀令)이 통과되었다. 동년 이래로 내무성은 수년간에 걸쳐 신사 정리 사업에 들어갔다. 합사(合祀)가 두드러졌던 것이 미에현(三重県)과 와카야마현(和歌山県)으로 미에현의 6500여개의 신사가 7분의1 이하로, 和歌山県의 3700개의 신사가 6분의 1 이하로 합사되었다. 1913년 경에 사업은 거의 완료되어 신사의 수는 19만에서 12만으로 급감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황폐된 호코라(小祠)나 인시(淫祠)를 폐지·통합하여 국가 제사로서 신사의 존엄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 또 지방행정의 합리화라는 측면도 있었다. 한편으로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지키기 위한 숲을 잃어버린 것도 폐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신사가 보유한 삼림을 재목으로 재원화 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더불어 국가신도를 위하여 민간신앙 금지정책을 폈다. 메이지 초기에 신령의 병의(憑依)나 그에 의한 탁선(託宣)을 하는 행위, 성신신앙(性神信仰) 등은 저속하거나 미신이라고 하여 부정(否定)시 되어, 많은 민속행사가 금지된다. 그 때문에 이즈모신도(出雲神道)계통 등의 신앙이 편협된 해석으로 크게 후퇴하였다. 신사의 제신(祭神)도 그 토지에서 고래로 모셔져 온 신들이 아니라 『고지키(古事記)』 『니혼쇼키(日本書紀)』 등의 천황 및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고토후(こうとうふ/皇統譜)와 연계되는 신들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78) 祠(ほこら)란 신을 제사지내는 소규모 집
 79) 淫祠邪教(いんしじゃきょう)의 준말. 일반적으로는 세상에 해독이 되는 不正한 종교를 가리킴. 그 신은 邪神(じゃしん)이라 함
 80) 일본의 武家 본래 성은 源氏. 家系는 세이와겐지(清和源氏)의 가계.
 81) 明治神祇官: 1868년 고대 율령제에 기초한 관제를 모방하여 太政官制가 시행되었다. 神祇官도 정식으로 부흥하여 太政官 아래 설치하여, 1869년에는 神祇官은 太政官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의 필두(筆頭)에 놓였다.
 82) 氏神(うじがみ)는 일본에서 같은 지역(집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모시는 신도의 신으로 같은 氏의 주변에 살면서 그 신을 신앙하는 자들을 氏子(うじこ)라고 함

따라서 지역에서의 전승이 두절된 경우 그 신사의 고래의 제신(祭神)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정술 한 바이다.

또한 신도지령(神道指令/しんとうしれい)이라는 것은 1945년 12월 15일에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발한 각서,

「国家神道、神社神道ニ対スル政府ノ保証、支援、保全、監督並ニ弘布ノ廃止ニ関スル件⁸³⁾」

의 통칭이다. 각서는 신교(信教)의 자유확립과 군국주의 배제, 국가신도를 폐지하고 정책분리를 위한 것으로, 당초, 정교의 완전분리(政教 完全分離)를 목적으로 했지만 1949년을 경계로 적용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나 「하코우잇츄(はっこういっちゅう/八紘一宇)⁸⁴⁾」용어의 사용금지, 국가신도, 군국주의, 과격한 국가주의를 연상하게 되는 용어사용도 이에 따라 금지된다.

3.3. 경과

「국가 신도」는 이처럼 불교 측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신도 측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정부가 바라던 바는 정부의 정책에 충실히 따라주는 신민(臣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베이스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앙은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정부는 하나의 마을에 신사는 하나면 된다는 포고를 내걸었고, 나아가 신사 소유의 토지라도 직접 제사와 관련 없는 토지라면 그 권리를 없애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신사가 폐지 혹은 통합되어 신사의 도리이(鳥居)가 경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세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국의 신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하자 신사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신(祭神)을 바꾸기도 하였다. 현재 본래의 제신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게 된 신사가 많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 충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종파에 대해서는 엄한 탄압을 가하기도 하였다.

결국 불교·신도가 본래 종교로서의 모습을 되찾기까지에는 전후 종교의 자유화시대 이후의 일이다. 그것은 태정관포고령(다조칸후코쿠/太政官布告), 태정관달(다조칸타시/太政官達)의

83) SCAPIN-448

84) 八紘一宇(はっこういっちゅう)는 『日本書紀』 권제3 진무천황(神武天皇) 조에 있는 「掩八紘而爲宇」에서 나온 말로, 대의로서는 천하를 하나의 집으로 하는 것.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大東亞共榮圈의 건설표어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폐지로 이루어졌다.

메이지신정부에 의해 나온 신불분리령(신불판연령)은 게이오 4년 3월 13일(1868년 4월 5일)부터 메이지 원년 10월 18일(1868년 12월 1일)까지에 나온 태정관포고령(太政官布告) 신기관 사무국달(神祇官事務局達), 태정관달(太政官達)등, 일련의 통달(通達)에 기초한 전국적이고도 공적으로 이루어진 분리 령을 말한다.

포고령과 관달은 메이지시대 초기의 최고 관청으로 설치된 다조칸(태정관⁸⁵⁾)에 의해서 공포된 법령의 한 형식으로 1873년(메이지 6년)에 각 관청 및 관원에 대한 훈령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 결문에 「운운후조차지상달후사(云々候條此旨相達候事)」 또는 「운운후조차지가상심득후사(云々候條此旨可相心得候事)」라 하였고, 전국 일반에 포고해야할 것에 대해서는 「운운후조차지포고후사(云々候條此旨布告候事)」라 하여 구별되었다(메이지 6년 태정관포령 제 254호). 1874년 전자는 태정관달로, 후자는 태정관포령으로 호칭하게 되나, 실제 취급상 특별히 엄한 구별이 있었다고는 하기 어렵다. 메이지 초기에 국가의사 형성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규제 대상을 같이 하는 법령이 몇 번이나 공포되면서 법령의 명칭에 있어서도 「법」「조례」「규칙」「률」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태정관 명어가 아니고 그 하부조직의 명의로 공포된 법령도 있어서 효력관계에 상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85년(메이지 18년) 12월 22일, 내각제가 발족함에 따라 태정관제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음 1886년(메이지 19년) 2월 26일에는 법령의 효력이나 형식을 정식화하기 위해 공문식(메이지 19년 칙령 제 1호)이 제정되어 태정관포령·태정관달이라고 하는 법형식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신불판연령과 관련된 중요 령⁸⁶⁾을 보면,

太政官布告/慶応四年三月十三日/王政復古・祭政一致が宣言され、神祇官再興が布告される。

慶応四年三月十七日/神祇事務局ヨリ諸社へ達

明治4年(2531/1871)/伊勢両宮世襲ノ神官ヲ始め大小ノ神官社家ヲ改正補任セシム(明治4年太政官布告第234号)

官社以下定額及神官職員規則ヲ定メ神官從來ノ叙爵ヲ止メ地方貫属支配ト爲シ士民ノ内へ適宜編籍セシム(明治4年太政官布告第235号)

明治5年(2532/1872)/神社仏閣女人結界ノ場所ヲ廢シ登山參詣随意トス(明治5年太政官布告第98号)

僧侶肉食妻帯蓄髮並ニ法用ノ外ハ一般ノ服着用随意タラシム(明治5年太政官布告第133号)

85) 메이지유신이 개시된 1868년(慶応4年/明治元年), 세이다이쇼(政体書)에 의해 설치된 최고행정기관. 立法・行政・司法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직명은 율령제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조직에 관해서는 수차례 개혁이 있었다. 1885년(明治18年)에 내각제도가 발족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86) <http://ja.wikipedia.org/wiki/%E5%A4%AA%E6%94%BF%E5%AE%98%E5%B8%83%E5%91%8A>

神宮以下諸神社祭典ノ節僧尼參詣苦シカラス(明治5年太政官布告第175号)
 明治6年(2533/1873)/比丘尼蓄髮食縁付帰俗等随意トス(明治6年太政官布告第26号)
 社寺境内ノ樹木猥ニ伐採スルヲ禁ス(明治6年太政官布告第235号) 社
 寺ノ什物類神官僧侶等态ニ処分スルヲ禁ス(明治6年太政官布告第249号)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종교에의 자유는 메이지 유신정부의 태정관포고령(다조칸후코쿠/太政官布告), 태정관달(다조칸타시/太政官達)의 폐지로 불교와 신도는 본래적 종교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게오(慶応) 4년(1868) 3월 28일, 메이지 유신정부는 신불혼효를 금지하고 사원과 신사를 분리하도록 명하는 신불판연령을 내린다. 메이지 초년 종교를 둘러싼 큰 변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국민국가 형성에 필요하고도 동시에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일본적 성향에 의한 개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현상 중의 하나로 메이지 초년의 신불판연령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유신정부에 따른 일련의 종교정책은 국민 국가형성에 동반한 종교적 합리화의 전형적 사례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며 신불판연령도 그러한 조치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관료기관과 정치적 지도력이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종교적 조직에 대해 규율로써 장악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신도와 새로운 불교라는 두 실체를 창출해 내었다.

우선 불교에 대해서는 메이지 유신정부는 전근대의 종교문화를 규정한 신불판연령을 통하여 신불습합에 종언을 실시하고 불교의 규모를 삭감하였다, 이는 불교의 공적역할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 공간으로 그 지위를 낮추어 신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새로운 불교만을 인가하게 되었다. 모든 불교가 신불습합 형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토진종의 강인한 조직은 신사의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교는 메이지시대를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도에 대해서는 메이지 유신정부는 복고신도로 부르고 있다. 메이지신도는 족보상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신도를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하여 거절하였고, 유일하게 제창하는 복고신도만이 국제적인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며 일본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메이지신도는 새로운 구성개념이며 그것은 국가가 승인하는 제례를 국가가 임명한 신관에 의해 국가가 정한 신사에서 집행한다는 국가 관리 하의 네트워크였다고 할 수 있다. 신불판연령은 그러한 국가신도를 창출하기 위한 메이지 신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일본적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일본인들 중에는 신불판연령은 일본의 종교문화의 혁명을 위한 기본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또는 신불분리를 증대한 문화혁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경향도 있지만, 결론으로서 필자는 이러한 메이지 초년의 종교행정은 실책이라고 판단하고자 한다. 그것은 가장 일본적일 수 있었던 신불사상의 교류중단과 문화사의 부정을 의미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参考文献】

羽賀祥二(2009) 『明治維新と宗教』筑摩書房, p.142
 鎌田東二(2000) 『神道とは何か自然の靈性を感じて生きる』PHP 新書, p.113
 葦津珍彦(2006) 『国家神道とは何だったのか』新版 神社新報社, p.89
 W・G・アストン, 邦訳(安田一郎)(1992) 『神道』青土社, p.126
 稲垣久和(2006) 『靖国神社「解放」当の追悼とはなにか』光文社 ペーパーバック 085, p.77
 井上寛司(2006) 『日本の神社と「神道」』校倉書房, p.45
 ジェームス・E. ケテラー(2006) 『邪教殉教の明治, 廃仏毀釈と近代仏教』ぺりかん社, p.203
 年佐伯恵達(2004) 『廃仏毀釈百年/虐げられつづけた仏たち(改訂版)』みやざき文庫20 鉦脈社
 安丸良夫(2009) 『神々の明治維新』神仏分離と廃仏毀釈 岩波新書 黄版103 岩波書店
 義江彰夫(1996) 『神仏習合』岩波書店, p.259
 佐木秋夫(1972) “国家神道”世界大百科事典 11(初 ed.) 平凡社 p.270
 宮地直一(1941) 『神祇史大系』明治書院, p.118
 _____(1984) 『国史大辞典・第五巻』吉川弘文館「国家神道」項, p.889
 ウィリアム・ウッダード(1988) 「天皇と神道GHQの宗教政策」サイマル出版会, p.165
 大黒学(2007)「国家神道の基礎知識」第零版 /Copyright © 2006-2007 Daikoku Manabu
 Allan Grapard(1984) 『Japan's ignored cultural revolution the separation of Shinto-Buddhist divinities and a case study』Tonomine' *History of religions* 23, 3
 Martin Collcutt, Buddhism:the threat of erdication (Marius Jansen and Gilbert zam 編 *Japan in transition:Tokugawa to Meiji*, Princeton: Princeton)
<http://ja.wikipedia.org/wiki/%E5%AE%89%E4%B8%B8%E8%89%AF%E5%A4%AB>(검색일 2012. 06. 11)
<http://ja.wikipedia.org/wiki/%E7%A5%9E%E7%A4%BE>(검색일 2012.06.12.)
<http://ja.wikipedia.org/wiki/%E5%9B%BD%E5%AE%B6%E7%A5%9E%E9%81%93>(검색2012.06 18)
<http://ja.wikipedia.org/wiki/%E5%A4%AA%E6%94%BF%E5%AE%98%E5%B8%83%E5%91%8A>(검색일 2012.06 19)
<http://www.weblio.jp/content/%E7%A5%9E%E4%BB%8F%E5%88%A4%E7%84%B6%E4%BB%A4>(검색일 2012.06. 18)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메이지정부의 신불판연령(神仏判然令)고찰 - 배경과 경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사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유연성이 신불혼효사상을 만들었으며 그러한 오랜 흐름이 메이지시대에 들면서 신불판연령(神仏判然令)으로 정리되는 배경과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의 필요성과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로써 일본사회의 종교라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게오(慶応) 4년(1868) 3월 28일, 메이지 유신정부는 신불혼효를 금지하고 사원과 신사를 분리하도록 명하는 신불판연령을 내린다. 메이지 초년 종교를 둘러싼 큰 변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국민국가 형성에 필요하고도 동시에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일본적 성향에 의한 개혁이었다고 정리 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 중의 하나로 메이지 초년의 신불판연령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신정부에 따른 일련의 종교정책은 국민 국가형성에 동반한 종교적 합리화의 전형적 사례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며 신불판연령도 그러한 조치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본인 연구자 중에는 신불판연령은 일본의 종교문화의 혁명을 위한 기본적인 측면으로 보는 이도 있다. 또한 신불분리를 중대한 문화혁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결론은 신불판연령과 같은 일련의 메이지 초년의 종교행정은 실책이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가장 일본적일 수 있었던 신불사상의 교류중단과 문화사의 부정을 의미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ZINBUTSUHANZENREI of MEIZI Government Consideration - with background, progress as the central figure-

In 28th March 1868(GEIO four-year), MEIZI the revitalizing reform government prohibited ZINBUTSUKONKOU and ordered ZINBUTSUHANZENREI to separate temple and Shinto temple.

Early MEIZI in general, the revolution related to religion is necessary to formation of the nation. Also it was reform toward Japanese as a universal phenomenon. So religion policy by the revitalizing reform government is understood as a typical case of religious rationalization with nation formation. And ZINBUTSUHANZENREI was a process of implement. Some of the researchers regard ZINBUTSUHANZENREI as a basic aspect for Japanese religion and culture revolution. Also they tend to consider ZINBUTSUBUNRI for important culture revolution. But my conclusion is that religious administration such as ZINBUTSUHANZENREI early MEIZI is mistake. That means stop communicating of Shinto & Buddhism and denying the cultural history.